



지 황

작물명과 생약명이 동일한 지황은 주로 뿌리를 이용한다. 주요효능은 보혈작용(寶血作用), 강장작용(強壯作用), 해열작용(解熱作用)이다.



안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점무늬병 피해 ●●●

잎에서 부터 발생하며 초기에는 원형의 작은 엷은 갈색 반점을 형성하고 오래된 병반은 동심원 모양으로 확대된다. 진전이 심해지면 병반이 서로 융합되어 커지며 식물체 전체가 고사하게 된다. 점무늬병의 경우 지황에 가장 문제시 되는 병해로 발병조건이 적합한 고온다습한 여름철 장마기에 대발생하여 그 피해가 심하다. 발병 초기 등록된 적용 약제로 방제도 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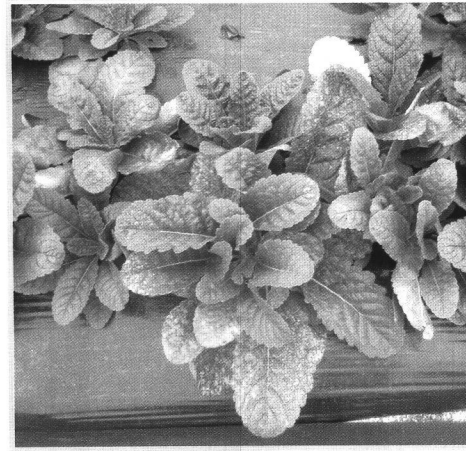
뿌리썩음 피해 ●●●

지황은 약용작물 중에서 습해에 대한 생리적 피해가 가장 심한 작물로 장마기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토양수분 함량이 높게 유지되는 점질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고 시들음병에 의한 이차적 피해가 심하다. 더불어 동일 환경 조건에서 뿌리썩음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병의 진전이 느려 외관상으로 피해유무와 정도를 구별하기가 힘들다. 지황은 1년근을 수확하는 작물로 동일 포장에서 연작시 피해정도가 매우 심해지므로 되도록 연작을 피하고 봄철 두둑 형성시 타작물에 비해 두둑 높이를 높게 만들어 주고 장마기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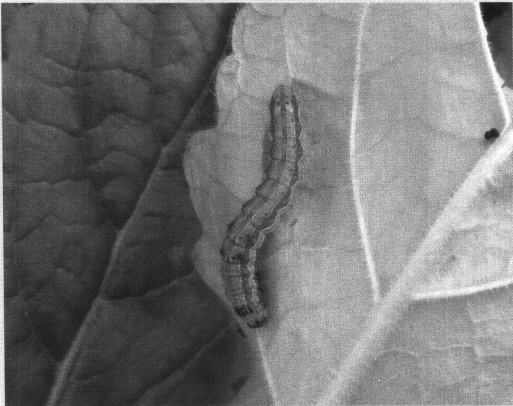


바이러스 피해 ● ● ●

국내 재배하는 약용작물 중에서 지황은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작물이다. 노란색의 모자이크 무늬로 바이러스 감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근을 파종시 재차 발생하여 광합성이 저해되고 뿌리생육이 부진하여 생산량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방제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며 지상부 바이러스 감염이 없었던 건전한 무병종묘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파밤나방 피해 ● ● ●



지상부에 발생하는 파밤나방 애벌레는 식물체의 전 생육기에 걸쳐 발생하나 생육초기 발생시 그 피해가 막심하다. 주로 낮에 지제부 및 표토부위에 숨어 있다가 서늘해지는 저녁이나 새벽에 지상부로 나와 식물체를 섭식하므로 발견이 쉽지 않으나 섭식한 부위의 배설물로 그 존재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등록된 적용약제는 없으며 지황 생육 초기 이른 아침에 포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발견 시 포살하도록 한다.

알락수염노린재 피해 ● ● ●

현재까지 지황에 발생하는 알락수염노린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양상이 보고된 바는 없다. 약용작물 중에는 지황과 황기가 알락수염노린재의 기주식물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5-6월경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교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흡즙에 의한 피해와 바이러스 이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등록된 적용약제는 없으며 발견 시 포살하도록 한다. ㉞

